

박유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

마약 투약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팬 분들께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두 달여 만에 물려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는 29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선고결과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 죄송하다”

라고도 했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눈물을 글썽이며 붉어진 얼굴로 한숨을 쉰 뒤 “팬 분들께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살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날 수원구치소 앞에서 박씨를 기다리던 일본 팬 등 30여 명은 박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박유천 사랑해”, “박유천 헬프” 등을 외쳤다.

박씨는 올해 2~3월 옛 연인인 황하나(31)씨와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이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10월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박씨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박씨 체 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4월23일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이날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 받을 것을



뉴시스

한류 배우 이민호, 세종학당 홍보대사 위촉

문체부, 오는 9일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



배우 이민호(32)가 해외 한국어, 한국문화 확산 대표기관인 ‘세종학당’ 일리기어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과 함께 해외 한국어 교육자 전문성 강화와 협력망 구축을 위한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을 오는 9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날 세종학당을 국내외에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로 배우 이민호를 위촉한다.

이민호는 앞으로 재단의 한국어·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전 세계에 세종학당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데뷔 13주년을 맞이한 배우 이민호는 ‘꽃보다 남자’, ‘상속자’, ‘푸른 바다의 전설’ 등 총 18

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얼마 전에는 김은숙 작가의 ‘녀 킹’ 영원의 군주를 복귀 작품으로 선택해 화제를 모았다. 매 작품에서 완성도 높은 연기력을 선보인 이민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두더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기부풀랫폼 ‘프로미즈’를 통해 환경, 아동, 동물 등, 기부 주제별 나눔 활동도 이어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한류 열기에 발맞춰 국내의 인지도가 높은 이민호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배우 이민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종학당을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왼쪽부터) 배우 박서준, 안성기, 우도환, 김주환 감독.

영화 ‘사자’, 여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영화 ‘사자’가 제작기를 공개했다. 격투기 챔피언 ‘용후’(박서준)가 구마 사제 ‘안 신부’(안성기)를 만나 세상을 흐린에 빠뜨린 강력한 악에 맞선다는 이야기다. 박서준(31), 안성기(67), 우도환(27)이 출연했다.

제작기 영상은 강렬한 비주얼로 눈길을 끈다. 김주환 감독은 “선과 악의 거대한 싸움 그리고 주인공 용후와 안 신부의 뜨거운 드라마도 있는 영화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을 들인 작품”이라고 자부했다. 박영식 무술감독은 “동물적인 움직임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박서준은 “그동안 했던 역할과는 많이 상반되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안성기는 “일할 때는 신중하고 진지하고 일이 끝나고 나서는 인자한 사람으로 표현했다”고 자신의 캐릭터를 설명했다. 우도환은 “인간적인 악으로 보여지고 싶었다”며 미스터리한 매력으로 국에 긴장감을 더한다.

박해진, 스텝 사랑도 한류스타급

드라마 ‘시크릿’ 매번 밥차 제공해 제작진 감동

한류스타 박해진(36)이 변함없는 스태프 사랑을 드러냈다.

박해진은 지난 3월부터 강원도 등지에서 드라마 ‘시크릿’을 촬영 중이다. 바쁜 스케줄에도 매번 촬영장에 정성어린 밥차를 제공, 제작진을 감동시키고 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고생하는 스

태프들을 위해 작은 정성으로 보답하고 싶었다”는 마음이다.

박해진은 촬영 때마다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는 것은 물론, 스태프들과의 팀워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시크릿’은 소방대원들의 구조현장을 재연하는만큼 애와 웰링이 많다. 더운 날씨에 스

태프들이 고생할까봐 사비로 밥차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 전에도 모든 스태프들에게 신계당을 대접했다. 이후 다양한 메뉴의 간강식으로 스태프들의 컨디션을 챙기고 있다.

‘시크릿’은 현실적인 욕망을 지닌 인물들이 삶에 모여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의 본질을 깨닫는 이야기다. 박해진은 119특수구조대 항공대원 ‘강산혁’으로 분연히 외과 레지던트 ‘정영재’ 역의 조보아(28)와 로맨스를 펼친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 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

쥐띠

이것저것 끝맺음 없이 천방지축으로 혼들린다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결단성 있게 한 가지 목적이 있으면 끝까지 결실 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서두르지 마라. 북, 동쪽에서 도움을 듯. ㅅ, ㅇ, ㅊ 성씨는 아이들 건강 주의.

소띠

요행을 바라지 말고 힘써 노력하라. 남의 것 탐내면 내 것부터 손실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분수를 알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5, 9, 11월생은 상대를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 멀어졌던 사람도 귀인이 될 수 있다. 투기는 불길.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